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사랑은 원수까지도(마태 5:38~48)

## GBC블레싱 콘서트

### 24일 남가주동신교회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이 안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박신화)을 초청해 오는 24일(일) 오후 5시 30분 남가주동신교회(담임목사 백정우,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에서 '제2회 GBC블레싱 콘서트'를 연다

이날 행사에서는 찬양곡뿐만 아니라 한국 민요도 선사할 예정이다. 입장권 가격은 1인당 20달러이다.

안산시립합창단은 2만여 명의 세계합창지휘자들이 가입한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에서 매 2년마다 개최하는 내셔널 컨퍼런스에 수차례 초청받아 세계 지휘자들로부터 최고의 합창단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문의: (714) 484-1190, (213) 331-1190

## 찬양단장이 · 취임예배

###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남가주목사장로부부찬양단 이·취임 예배가 4일 오후 6시, 세계야가페선교교회(담임목사 전용복, 933 S Lake St., LA, CA 90006)에서 열렸다.

이날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에 이어 백선용 목사(선민교회 담임)가 신임 단장에 취임했다.

이날 예배에서 박종대 목사(증경단장)는 '성령의 위로와 축복(행9:31)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주를 경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서, 착하고 선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또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즐거우면서도, 다른 한편 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눈물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 시간과 내 정력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삶의 에너지가 크게 생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서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 더 쉽고 더 유쾌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공로가 되고 더 은혜가 됩니다. 자신이 죽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큰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이 아주 요물이라 시아버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밥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며 곱잖으면 말대답이요, 한술 더 떠서 시아버지



를 쫓아내겠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요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들고 대드니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면서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하루는 장에 갔다온 아들이 자기 마누라에게,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아, 글썽 통통하게 살찐 영감을 사겠다고 소리치고 다니는 작자가 있던데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누라가 무릎을 치며 "맞아요. 아버지를 살찌워서 팝시다."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아버지 공경을 아주 극진하게 했습니다. 비싼 값에 팔리는 욕심 때문에 돈도 아끼지 않고 늘 고기와 쌀밥으로 봉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이 안 찰 것이다 해서 시아버지의 맘을 편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 바칩니다. 마실값다 오시면 안마도 해 드리고 방은 늘 따뜻하게 불을 지펴 놓곤 했습니다.

이러니 시아버지가 참으로 살판이 났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에게 그

랬습니다. "얘야, 내가 요즘 마실다 니면서 아주 기를 펴고 산다. 사람들이 온통 네 자랑이요 칭찬이 자자하여 동네에서 원님 앞으로 효부상을 올리겠다고 하는구나. 세상에 시아버지 안마까지 해 주는 며느리가 너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 하면서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모님 잘 모시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데도 글썽 요즘 우물가에 가면 동네 여자들이 저보고 속도 곱고 마음도 비단 같다고 칭찬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효도 구경 오겠대요." 하면서 진심으로 시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여보, 이제 저 정도면 값을 비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는 장날에는 아버지를 그만 내다 팔도록 합시다." 하고 마음을 떠봤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장에 팔자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기는 시아버지 모시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선 자기가 죽어야 하며, 죽어야만이 예수님처럼 가장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서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일 망정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닮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